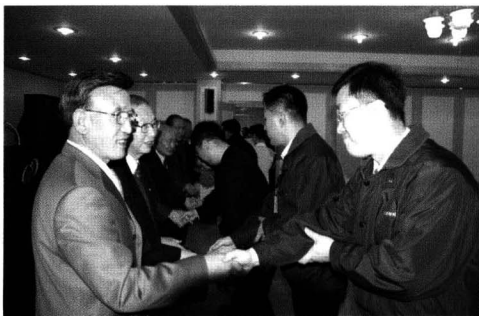


● 2006년 새해 사무식

협회는 1월 2일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는 사무식을 갖고, 변화와 도전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최병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하여 지난해 비전 2005의 성과에 대하여 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해부터 새로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비전 2010의 성공적 달성을 향한 직원들의 자세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신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보건 서비스의 유비쿼터스화 추진 등 협회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실천하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지 바로 다가갈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 외국인노동자 전용의원 후원 협약체결

협회는 1월 3일, 외국인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사)지구촌사랑나눔이 기부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로구 가리봉동에 위치한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을 후원하기 위해 물품과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후원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협약식은 최병수 회장을 비롯, 조규상 명예회장과 임원,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해성 목사, 이완주 원장,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최병수 회장은 "외국에 취업하여 인권보호와 근로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상과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환경이 열악한 외국인근로자들을 돕는 후원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 매우 보

람되며, 근로자 건강은 어떠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 외국인근로자와 더불어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협약체결 소감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00년부터 '아름다운 작업활동센터'의 다운증후군 근로자들의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 외국인노동자들을 돕는 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를 통하여 향후 산업보건의 본연의 목적과 협회 경영이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비전 2005 달성 축하 및 송년의 밤' 개최

협회는 지난 12월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지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온 비전 2005의 성공적 달성을 자축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김춘진 열린우리당 보건복지분과의원, 김성중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김명현 식약청 차장, 그리고 윤한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의과대학장 및 관련단체 외빈 170여명과 협회 임원 등 총 350여명이 참석하였다.

최병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량협회가 되기 위해 뭔가를 이루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한 비전 2005가 직원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모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팔목할만한 많은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이런 성과도 산업보건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회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비전 2005 달성을 자축하면서 그동안의 성과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한 포상을 하였다. 이어서 협회의 새로운 목표 ‘21세기 산업보건을 선도하는 협회’를 향한 비전 2010을 선포하였고, 협회 임직원들은 열정·책임·도전정신으로 비전 2010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 GM대우 부평공장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협회는 지난 12월 9-14일까지 GM대우 부평공장 관리감독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및 관리감독자의 역할, MSDS 활용, 근로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참여형 개선활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사업장 맞춤형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특히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뇌심혈관질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한 내용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참여형 개선활동에서는 저비용 개선사례를 사진으로 확인하고 토론을 거쳐 공유하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생들로부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사업장에서 의뢰하는 경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 오웅배 부장, 대전지방노동청장 표창 수상

대전센타 오웅배 보건관리부장이 2005년도 산업보건분야 우수공로자로 선정되어 대전지방노동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오웅배 부장은 16년간 협회에 재직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앞장서 직업병 예방을 위해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되었다. 🍀